

손흥민, EPL 득점왕 가시권

리버풀전 후반 11분 선제골로
데뷔 첫 리그 20골 고지밭
'득점 1위' 살라와 2골 차
득점왕 경쟁 2파전으로 좁혀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 후반 11분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로는 개러스 베일 이후 처음으로 PK 골 없이 리그 20호 골을 달성했다.

경쟁자인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앞에서 데뷔 첫 리그 20골 고지를 밟은 손흥민(30·토트넘)의 아시아 선수 최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손흥민은 지난 8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치러진 리버풀과의 2021~2022시즌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0-0이던 후반 11분 선제골로 토트넘에 리드를 안겼다.

비록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지만, 손흥민은 이 골로 새 역사를 썼다.

손흥민은 유럽 무대 데뷔 후 11년 만에 한 시즌 정규리그 20골에 성공했다. 이는 아시아 선수가 이른바 유럽 5대리그(잉글랜드 EPL·스페인 라리가·독일 분데스리가·프랑스 리그 1·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기록한 한 시즌 최다골이기도 하다.

또 2022년에만 EPL에서 12골을 넣고, 17개의 공격포인트를 쌓았는데 이는 모두 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다 기록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던 득점 선수 살라(22골)의 격차도 2골 차로 좁혀졌다.

정규리그 3경기가 남은 가운데 몰아치기에 능한 손흥민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아스널(홈), 15일 번리(홈), 23일 노리치시티(원정)와 연속해서 만난다. 아스널은 제이코비언 하위권에 처진 팀들과 대결이 남아 추가 득점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아스널 노리치시티와 첫

맞대결에서 모두 골 맛을 봤었다. 살라의 최근 득점 행진이 주춤한 것도 손흥민에게 호재다.

최근 5차례 정규리그에서 2골에 그쳤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멀티골이 유일하다. 살라는 2022년 들어 EPL에서 7골을 넣었는데, 같은 기간 손흥민은 두 배에 가까운 12골을 터트렸다.

살라는 2017~2018시즌 32골로 처음 EPL 득점왕에 오른 뒤 2018~2019시즌 22골로 두 시즌 연속 최고 골잡이에 등극했다.

손흥민은 2012~2013시즌 12골로 처음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뒤 2016~2017시즌 14골, 2020~2021시즌 17골에 이어 올 시즌 20골 고지를 밟으며 매 시즌 자신의 득점 역사를 새로 썼다.

손흥민은 최근 "득점왕은 항상 나의 꿈이었

다"면서도 "골보다 팀이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승점 62)로 4위인 아스널(승점 66)과 승점 4점 차다. EPL은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는다.

3파전이었던 득점왕 레이스는 손흥민과 살라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최근 4경기 연속골로 맹추격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8골·맨유)가 8일 브라이튼전에서 침묵하면서 득점 2위 손흥민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심지어 맨유는 정규리그를 단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어 호날두가 23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최종전에서 대량 득점을 하지 않는 이상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시스

테니스 꿈나무들 순창서 집결

전국 초등 테니스대회 성료
男 목행초·女 군위초 '우승'



우승을 차지한 목행초 테니스부

순창군이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 라귀현)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한 '제26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기 테니스대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과 제일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12세 이하의 선수 및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단체(학교 및 클럽) 60개팀 470여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경기는 새싹부, 10세부, 12세부로 각각 남녀 단식과 복식 경기로, 단체전은 팀당 4명이 출전하여 2단1복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실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스포츠 대회로서 경기 및 훈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자와 관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대회를 치렀다.

경기 결과는 ▲단체전 남자부 목행초, 여자부 흥연초 ▲새싹부 단식 남자 관음부 천CS, 여자 최윤설(군위초) ▲10세부 단식 남자 최민건(목행초), 여자 김아름(흥연초) ▲12세부 단식 남자 김동재(군위초), 여자 김시애(흥연초)가 각각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양은옥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스포츠가 계몽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굴뚝 없는 신성장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외국인 사령탑에 '지휘봉'

남녀 핸드볼 국가대표팀 새 시도

女, 덴마크 출신 김 라스무센 · 男, 포르투갈 출신 홀란드 프레이타스

한국 남녀 핸드볼대표팀이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에게 지휘봉을 맡긴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에 덴마크 출신 김 라스무센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에 포르투갈 출신 홀란드 프레이타스를 각각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라스무센



홀란드 프레이타스

한국 남녀 핸드볼 대표팀이 외국인 사령탑을 불러들인 것은 최초의 일이다.

도쿄올림픽 이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협회는 기존 한국의 장점에 외국 핸드볼 장점을 융합해 세계무대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이번 일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여자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감독 후보군 면접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제핸드볼연맹(IEHF)에 선발 공고를 병행해 최대한 우수한 자원을 뽑으려고 노력했다.

남녀 각 10여명 이상 지도자가 지원한 가운데 협회는 감독단임위원회 거쳐 최종 후보군 꾸린 뒤 수차례 비대면 일대일 화상 면접과

경력 검토 등을 통해 선임 완료했다.

여자 대표팀을 이끌 라스무센은 1972년생으로 2010년 폴란드 국가대표팀을 시작으로 헝가리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쳤다. 2018년에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팀을 맡아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

끌었다. 지난해까지 몬테네그로 감독을 맡아 도쿄올림픽 진출권을 따내는 저력도 발휘했다.

남자 대표팀 프레이타스는 1965년생으로 포르투갈 남자 주니어 국가대표팀 코치 및 감독직을 오랜 기간 수행했다. 2015년에는 포르투갈 대표팀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정상에 올렸다.

남녀대표팀 감독은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16일 공식 기자회견을 거쳐 17일 인천선수촌에 입촌한다.

한편 협회는 이들을 보좌할 외국인 코치도 조만간 선임하기로 했다. 코치진 트레이너, 통역 등 선수단 구성 역시 신중을 기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더 나아가 파리올림픽을 향한 발판을 마련할 생각이다. /뉴시스

국대 후보선수 국외 전지훈련 재개

대한체육회, 26개 종목 400여명 대상

대한체육회가 엘리트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6개 종목 국가대표 후보선수(약 400명)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파견 및 국외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대표 후보선수 국제대회 파견 및 국외 전지훈련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지만, 다시 대폭 확대해 재개한다.

지난 4월 2022 여자주니어월드컵 참가를 위해 남아공을 찾은 하키 선수단을 시작으로 탁구, 역도, 체조 등 각 종목별 순차적으로 국외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유인택 선수촌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타국 선수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며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안타까웠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꿈나무·청소년·후보·국가대표로 연계된 전문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29개 종목의 1310명의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선발해 육성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확률은 전년 기준 85.1%다.

/뉴시스

수영연맹, 호주 국외 전지훈련

대한수영연맹은 9일 호주 국외 전지훈련 중인 황선우(강원도청), 이호준(대구시청), 김우민(강원도청), 이우연(한국체대) 등이 최종 예정대로 다음달 1일까지 이안 포크 코치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4인방은 올해 9월로 예정된 항저우아시안게임 계영 800m 금메달을 위해 대한수영연맹의 지원 아래 호주로 떠났다. 대한수영연맹이 일부 선수들로 구성된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최근 항저우아시안게임의 연기가 확정됐지만 선수들은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롱코스·6월18일~7월3일)도 있는 만큼 스케줄 변동 없이 남은 기간 호주에서 땀을 흘린 뒤 귀국하기로 했다. /뉴시스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

무주구청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